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4월 10일(월) 밤부터 13일(목) 밤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고난주간 특별 금식 부흥회

금주는 고난주간, 14일(금)은 전교인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
부활주일은 아멘찬양대의 축하음악예배로, 청년2부에서는 특강도

금년도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오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교회에서는 금년에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별로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기에 부산하며 아멘찬양대에서는 부활축하 음악예배를 준비하기에 마지막 여력을 모아 화음을 고르고 있다. 청년2부에서는 심상범 교수(충신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부활절 기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란 강의도 준비하고 있다.

또 한편 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으며 충현기도원에서 금식부흥회를 열기로 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4월 10일(월) 밤부터 13일(목) 밤까지 계속될 금식부흥회는 매일 오전 5시, 낮 11시, 오후 8시에 모이며,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 최해일목사(고신 총회장), 장경철목사이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14일(금)은 전교인 금식일로 선포하였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전 교우가 경건하게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 그 누구 때문이 아닌 바로 나와 너, 우리 때문에 일어난 그 경이로운 사건! 그러나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보내며 우리는 과연 그 사건을 얼마나 우리의 삶속에 투영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연례행사로 무감동, 무의미하게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00년전 유대땅 갈보리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바로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그대로 재현되어야 한다. 주님의 부활이 한낱 역사 속에서 잠든 2000년전의 사건일뿐이

라면 그것에 오늘의 우리가 관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부흥회 기간 중 기도원 버스 운행

·충현교회에서

매일, 오전 9시~10시 출발

매일, 오후 6시~7시 출발

·성남 모란시장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기간중, 오전 10시 10분 출발

기간중, 오후 7시 10분 출발

·분당 전하리교회 앞에서

기간중, 오전 10시 20분

기간중, 오후 7시 20분

피택 안수집사 및 권사 교육

지난 3월 19일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제9대 안수집사와 제37대 권사 후보의 교육이 오늘(4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된다.

성경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게 되는 본 교육은 피택자 전원이 참여하여 교회 헌법에 관한 내용 및 봉사에 관한 내용, 충현교회 역사와 전통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게 된다.

교육이 마쳐지면 당회가 주관하는 고시에서 70점이상 득점하여야 임직을 받게 된다.

피택자는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베다니홀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는다.

예수사랑큰잔치를 준비하며

양육위원 수련회

4월 11일(화), 12일(수) 갈릴리홀

새가족위원회(위원장 오정현 장로)는 앞으로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하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일대일로 돌보며 양육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따라서 새가족양육위원들에 대한 새가족실무 교육을 겸한 '양육위원 수련회'를 가져 이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 수

련회는 4월 11일(화), 12일(수) 오후 6시부터 9시 40분까지로 첫째날은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양육위원의 책임과 사명'에 대하여, 새가족위원회 지도 교역자인 윤삼중 목사가 '구원초청의 원리와 사명'을 강의한다.

둘째날은 윤삼중 목사가 첫시간에 '효과적인 새신자관리와 양육'에 대하여, 둘째시간에는 모범적인 양육위원 중에서 양육 사례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질문, 토의식으로 진행된다. 새가족위원회 양육위원(새가족부 교사) 및 교구양육위원 전원은 필히 참석해야 한다.

기독교방송국 주최 '95 부활절기념음악회에서
본 교회 가브리엘찬양대 가장 좋은 호응받아
지난 4월 3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7개 교회 출연

가브리엘찬양대는 4월 3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독교 방송국 주최 '95 부활절 기념음악회'에 본 교회를 대표하여 출연하였다(아래 사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등 엄선된 7개 교회 찬양대와 2개 연주대가 출연한 본 기념음악회에서 '와서 주 앞에 기쁜 찬양해' (Cindy Berryhr), '평안의 노래' (John Rutter), '먼류관 가지고' (Camp Kirkland) 등 3곡을 준비하여 출연한 가브리엘찬양대는 청중들의 가장 좋

은 호응을 받았다.

가브리엘찬양대는 1부예배 담당 찬양대원으로 인원동원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걱정했으나 온 찬양대원이 일치하여 참가함으로써 이번 출연 7개 교회 참가 찬양대 중 가장 많은 인원(134명)이 참가하여 웅장함 뿐만 아니라 음악성에서도 뛰어났다는 평을 들었다. 이는 전 대원이 연초부터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충분한 연습이 준비하는 결실이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금주의 교회행사

1.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4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10교구가 계속

지난 2월 6일 시작한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를 금주에는 4월 10일(월) 오전 9시부터 10교구가 시작한다. 10교구는 4월 10일 오전 9시까지이다.

2. 고난주간 특별 금식 부흥회

4월 10일(월) ~ 13일(목)까지
매일 오전 5시, 낮 11시, 오후 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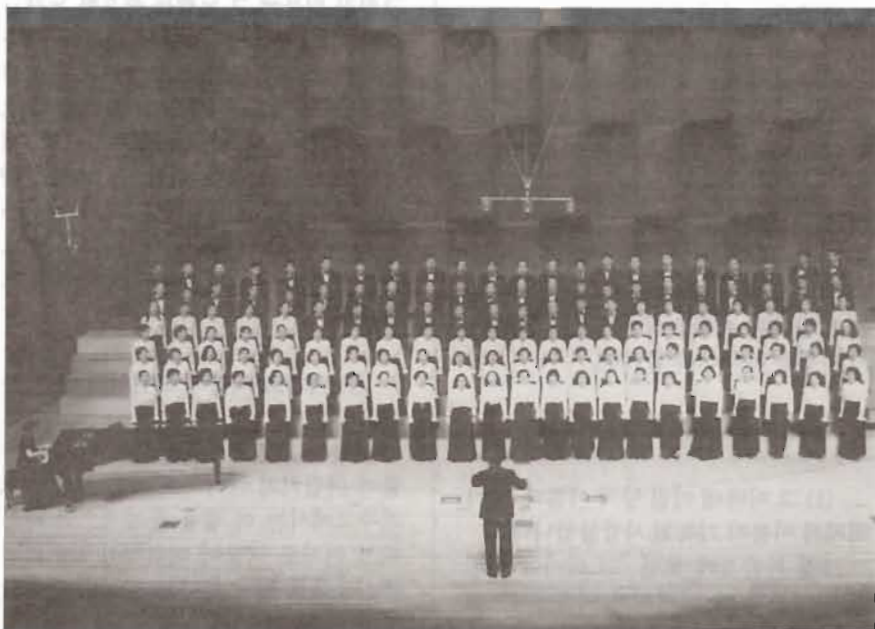
고난주간을 맞으며 충현기도원에서

는 특별 금식부흥회를 실시한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양육위원 수련회

4월 11일(화), 12일(수)
오후 6시부터, 갈릴리홀에서

양육위원 수련회가 오는 4월 11일(화)과 12일(수)일에 갈릴리홀에서 열린다. 새가족위원회 양육위원과 교구양육위원이 참가 대상이다.





충원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31 ●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4,000 (계 14:1-5)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4,000'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4장은 보충계시입니다. 즉 7년 대환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그 배경적 설명입니다.

1.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4,000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온산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온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입니다. 서울의 남산의 반도 안되는, 어떻게 보면 언덕이라고 해야 할 아주 조그마한 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도 시온산이라고 했고 또 지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의미할 때도 시온성, 시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천년 왕국을 시온산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온산이라는 말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되신 예수님께서 서 있고 그와 함께 144,000의 무리들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찬양대원들이 서서 찬양하듯이 예수님께서 서가대 지휘자처럼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4,000의 무리가 찬양하면서 그 앞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44,000은 누구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44,000이라는 말은 12×12×10×10×10입니다. 10을 삼위일체 숫자인 3승하면 1000이 됩니다. 이 1000은 성경에 보면 많다, 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2×12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즉 구약 성도들의 대표와 신약 성도들의 대표를 곱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의 찬양대원인데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4,000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144,000에 속하느냐?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 신약시대에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으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이 모두 144,000의 무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144,000의 자격

(1)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사람만이 144,000의 무리에 속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마는 우리 육신의 이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표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666의 짐승의 표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방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뜻의 단어로 '네오스'와 '카이노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어의 뉴스(news), 소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뉴스는 시간을 다룹니다. 옛날 얘기는 뉴스가 안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사용되어진 말은 네오스가 아니라 '카오노스' 혹은 '카이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노래를 뜻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외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래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릅니다. 일반 관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는 중요한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틀립니다. 그런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사람만이 새 노래를 좋아합니다. 새 사람만이 새 노래를 만들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려면 독신생활을 해야 한다고 지금도 주장합

우리 모두는 어린 양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 산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이마에 인을 맞은 자, 그 입술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진 자,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자만이 구속함을 받은 144,000의 무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있느냐, 결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독신으로 살아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하는 것만 가지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신앙의 절개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순결, 신앙의 절개를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자로 더불어"라고 했는데, 여자라는 말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로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여자는 유혹이나 혹은 우상에 절하는 것을 뜻하는 아주 나쁜 의미입니다. 아무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만이 144,000의 무리에 속해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4) 정절이 있는 자들입니다.

넷째로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처녀, 미혼자라는 것입니다. 얼핏보면 결혼을 정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절이 있는 자라는 말은 계속해서 보면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따라가는 자입니다. 둘째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정절이 있는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바로 정절이 있는 자라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처럼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이런 사람들이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

(5)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요일 2:22)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요일 4:20) 바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앙고백이 순결하고 언행에 모순이 없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꿈에라도 우리가 부인하면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입에 신앙고백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6)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5절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고 했습니다. 흠이란 결함, 결점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결함이나 부분적인 결함을 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것은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애꾸눈이나 절뚝발이나 흠이 있으면 그 동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느 한 군데만 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에도 흠이 있고, 행위에도 흠이 있고 맨 흠투성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양을 통해서도, 고행을 통해서도, 선행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될 때에 모든 흠은 깨끗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이마에 인을 맞은 자, 그 입술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진 자,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자만이 구속함을 받은 144,000의 무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이 되어 어린 양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최영신

<새가정부 회원>

우리가정이 이곳 안양으로 이사온 지도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다. 막상 이사는 왔지만 아는 사람도 없이 낯설기만한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곳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 옆집에 사는 가정을 소개하려고 한다. 처음에 이사와서 인사는 나누었지만 첫눈에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한지 13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처음엔 조심스럽기까지 했다. 옆집 언니(호칭)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말이 없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조차 싫어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마침 우리 아이 나일이는 매일같이 그 가정에 놀러가 큰 엄마, 큰 아빠라는 호칭으로 그분들에게 정(?)을 주었고 그분들도 귀여운 반, 부러움 반으로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옆집 아저씨는 큰 아들인데 형제들 중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언니 가정에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실 정도로 믿는 것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신앙이 구속이었고, 도무지 재미(?)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교회에 가서 성경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았고, 목사님의 심방도 거절할채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던중 우리 가족이 이사를 왔고 나는 매일같이 그 가정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도대체 받아 주질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믿으려면 나일이 얼마나 잘 믿어! 왜 나를 가지고 그래?” 할 정도였다. 나는 참으로 답답했다. 기도하면 주실것만 같은데 그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나도 참 대단한 모험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행동이 그분들에게 확신을 준 것이다. 그렇다고 나에게도 그렇게 큰 믿음은 없으면서 웬지……, 함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자녀

를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한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신있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다.

그때 마침 언니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기도하면 아기를 정말 주실까?” 등등 여러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너무나 감사했다. 왜? 지금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조금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첫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함께 구해보자고 권했다. 그것도 40일 작정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했다. 물론 새벽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다. 이러한 나의 제안에 언니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우리 가족은 매일 밤마다 가정예배 시간에 그 가정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으며, 또한 언니와의 약속대로 함께 40일 작정예배를 드리면서 중보기도를 했다. 같이 동참한 남편에게도 감사한다.

나중된 자가 먼저된다고 하는 성경말씀처럼 언니는 좌절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때로는 우리보다도 먼저 교회에 가는 열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언니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다. 언니는 몸구조상 정상 임신은 불가능했다. 시험관 아이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5년전에도 한번 시도하다 실패로 돌아간 경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아시리라.

40일을 무사히 마치고 병원에 같이 가기로 했다. 언니와 나는 병원에 가면서도 능력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한 것일까? 마침 병원앞에서 우연히 내가 1교구에서 살때 같은 교구식구였던 교인 한분을 만난 것이다. 그분은 그병원(차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이어서 특히 언니와 같은 체질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유능한 의사선생님 한분을 소개시켜 주셨다. 우리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일들이 이미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다.

1차, 2차 및 3차 검사를 하는 중에도 어려움은 대단했으며 불임환자의 고통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매일같이 안양에서 차병원까지 버스를 세번씩 갈아타고 왕래하는 일, 매일같이 주사맞는 일, 어쩌다 몇일 정도 병원에 못갈 경우 주사액을 받아와 직접 서투른 솜씨로 똑똑 피흘려가며 주사놓던 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들은 몇번씩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던 일 등등, 정말이지 정상적인 임신,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며 대단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수술이 성공하던 날, 언니가족들은 “주여 감사합니다”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매일같이 기도해야 했으며 주님을 찾아야만 했다. 어느덧 배는 차오르고, 몇번씩 병원에서 경고(?)의 얘기들이 전해질 때마다 가슴은 철렁, 또한 94년의 여름은 왜 그다지도 길며, 왜 그다지도 무더운지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도 한 두번이 아니었으리라.

드디어, 94년 10월 마지막날 13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생명은 태어나고 말았다. 집안의 대를 이어 하나님께 충성할 귀여운 아들이……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평화를 눈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잠 48).

부끄러움을 당할뻔한 믿음을 높이 살리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교회학교에서 / 청년2부 □

신선함과 자유함이 있는
시편강해

정은희

(청년2부 회원)

모든 말씀이 다 좋지만, 특별히 시편은 내 영혼이 곤고할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마음껏 찬양드리고 싶을 때나 부담이 없으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다. 시편의 기자들이 토로한 영혼의 고백들이 알알이 가슴에 맺혀온다. 그러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던 부분, 상징적인 말씀들은 그냥 지나쳤고, 그래도 은혜는 넘쳤었지만…….

95년 청년2부에서 김정우 목사님을 통해 시편강해를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인 것 같다.

전체적 흐름 속에서 구절구절 쪼개서 특별히 목사님 특유의 유우머와 또 우리와 같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선함을 느끼며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맛본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환난의 때에 부르짖으며,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진실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끝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주제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조건이 붙지 않는 오직 만유의 주재가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려야 함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만 고정시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임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

매주마다 시편을 배우며, 한 주 한 주 지나감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이 풍성해짐을 느끼며 점점 더 기대가 된다.



□ 지금 우리 부서는 / 아멘찬양대 □

’95 부활절축하 찬양예배를 준비하며

최상의 찬양을 위한 최선의 노력

채종성

<집사, 아멘찬양대 총무>

합창단보다는 음악성이 부족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부활절 음악예배를 위해서 금요일 정기 연습 외에도 화요일 특별연습으로 음악적인 실력을 쌓고 있으며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찬양대가 되기 위해 당번을 정해 1회 금식기도와 연

속기도, 조별 기도, 화요일 연습 후 특별기도회로 우리의 하나님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

부활절 축하 음악예배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곡은 David T Clydesdale의 I'm(주님)으로 이 곡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칸타타와 차이는 없으나 곡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반주처리, 곡의 연결과 짜임새가 다른 어떤 칸타타보다도 훌륭하다. 이번 음악예배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며 화상

“바라보라 상하시고 찢기우신 버림 받은 주 예수를 멸시당한 주 예수를……”

요즘 호산나홀 앞을 지나노라면 부활절 음악예배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아멘찬양대의 연습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화목한 찬양대’ ‘자율적인 봉사’라는 목표로 95년을 새롭게 출발한 아멘찬양대는 주일 평균 찬양인원이 130여명으로 주일 4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다.

아멘찬양대가 다른 찬양대와 다른 점은 연령분포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찬양대의 나이가 많으면 소리가 힘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힘찬 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신분이 각기 다르고 다양한 개개인이 모인 집단이 아멘찬양대이고 남녀노소, 지위의 고하,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멘찬양대의 장점이다. 신앙과 음악을 통한 공동체 의식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믿음 안에서 아멘찬양대는 성장하고 있다. 찬양대란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보다는 일반인이 많아서 다른

처리(O.H.P)로 성도들의 이해를 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동참토록 할 것이다.

곡의 내용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하는 합창으로 시작한다. 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꾸짖는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거룩하고 만왕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그의 영원하심을 찬양한다.

부활절 찬양예배를 통하여 아멘찬양대의 음악적인 발전을 확신하며 대원들 개개인의 믿음이 깊어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화목한 찬양대가 될 것을 믿으며 호산나홀로 걸음을 재촉한다.

오케스트라 대원 및 고등부 교사 모집

2부 예배 오케스트라도

.....

찬양위원회에서는 주일 II부 예배에 봉사할 오케스트라 대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이며 기악 전공자로서 오케스트라 대원으로 봉사할 사람은 매 주일 오후 오후 1시 연습실(본당 지하 1층 입마 누엘홀)로 직접 찾아가거나 교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교회학교 고등부에서는 고등부에서 봉사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우리 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교사양성부 수료생, 또는 교사양성부 수강 중에 있는 사람이면 된다. 희망자는 교회학교 고등부나 교회 교육국(교육관 103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연합대성회

오는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95 세계선교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4월 11일(화) 오후 2시, 햇빛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는 '여성연합대성회'로 모여 기도회를 하게 된다. 강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여성연합성가대와 한국대권도선교단이 특별출연한다.

여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요한전도회연합회 4월 22일, 족구대회

요한전도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요한전도회 지회별 족구대회가 4월 22일(토) 오후 2시부터 우리 교회 본당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이는 매년 모이는 대회로 금년에는 6회째가 된다. 더구나 금년에는 예수사랑 큰잔치가 6월에 열림에 따라, 모여 친교하며 전도에 대한 마음들을 새롭게 할 계획이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4/12(월) 고난주간 특별 금식부흥회 설교(충현기도원)
· 신성종 목사: 4/10(월) 목회자세미나 강의, 4/11(화) 양육위원 수련회 특강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과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과 건강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접촉하여 열매맺게 하소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주차문제

한 대라도 더 주차하고자 애쓰며

전 교인의 관심과 협조없이 주차 문제 해결하기 어려워

우리 교회의 주일 II, III부 시간 교회당 주변은 온통 차량으로 가득 덮혀 있다. 아마도 공중촬영을 한다면 차량 가운데 큰 교회당이 서 있는 모습일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다닐 통로도 없이 주차해놓은 차량사이를 헤집고 다녀야 할 판이다. 교회 주변에 주차장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주차장인지 차량적재장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모든 공간에 주차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효율적으로(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주차를 시켰다고 감탄이 나올 정도이다.

교회는 매주일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한 지난 해부터 시작된 제2교육관 건축과 함께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자 교회 전체적인 문제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주차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당회원과 교역자를 차량관리부에 직접 투입하는 등 여러모로 애쓰고 있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수는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차량관리부 관계자들의 이야기이다.

지난 해부터 강조함으로 금년들어 모두가 조심하고 질서를 지키려는 태도는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특히 차량관리부 소속 장로님들이 매주 차량관리부에 들러 격려하고 함께 염려하는 모습에게 큰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교회 분위기를 모르고 자기 편한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매주 차량관리부원들과 심심찮게 마찰이 생기곤 한다.

현재 차량관리부원들은 80여명, 그중에 매주 꾸준히 나와서 봉사하는 부원은 50~60명이다. 이 인원이 주일 II, III부 예배 시간 전후에 전원 배치된다. 한 주일에 교회에 주차되는 차량이 약 3,600~3,700 여대. 이 중 II, III부 예배 전후에 주차되고 움직이는 차량이 2,500여 대이다.

각 부원들은 금년들어 새로 구입한 무전기(위키토키)를 들고 서로 각 주차

지역의 상황을 교신한다. 따라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주차유도요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눈에 보이는 곳은 이미 주차가 끝나있고 주차유도요원들은 무전기를 통해 어느 주차 공간에 몇대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를 서로 확인 하기에 그리로 차량인도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여기서 서로 시비가 벌어 지기도 한다. 주차유도요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멋대로 주차하려고 하다 보니 잘못 주차하여서 많은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매주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차창 문을 닫고 다니기에 유도요원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 서로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교회에 들어오는 차량은 진입로에서 운전석 차창을 열고 들어오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아직도 주차할 때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주차장이나 진입로에 2열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을 때는 기본적인 상식이 ① 기어를 중립에, ②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③ 바퀴를 일직선으로 하는 것인데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다음 차량들이 장시간 동안 갇혀 있는 경우가 아직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갇혀있게 되는 차량의 주인이 새신자인 경우 차량관리부원들이 겪는 난처한 입장은 말할 수가 없다.

궁여지책으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지만 붙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리 편할리가 없다. 보기에도 좋지않고, 서로가 조금씩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차량관리부원들의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추위와 더위가 그렇고 주일 오전 10시 ~ 오후 1시까지 계속 차량관리, 유도 등을 하는 일이 그렇고, 교인들과 본의 아니게 마찰이 일어나서 그렇고. 겨울에는 늘 방한화를 신고 다녀야할 판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접어놓고 이들의 간절한(?) 소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그런 어려움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빈 공간이 없이 한 대의 차량이라도 더 주차시킬 수 있는가가 관심사이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소원(?)을 들어본다.

· 소원 1/ 주차 유도요원의 지시를

꼭 따라 주세요

- 소원 2/ 교회 진입로로부터 차창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가 들리도록 해주세요
- 소원 3/ 2열 주차시 주차상식을 지켜 주세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 앉으면 주차에 대한 묘안(?)이 백출한다. 귀담아 듣고 실천하면 좋을 법한 이야기가 많다.

— 주일 차량운행을 운전연습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 혼자 타고오는 경우는 이것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 차량관리부원을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과 같이 연초에 일방적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다(순환해서, 한번씩 차량관리부원이 되어서 경험해보면 한결 주차질서가 좋아질 것이기에. 신임 임직자는 반드시 1년 차량관리부서에서 봉사한 다던가 등).

— 주차관리요원으로 여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주차관리 분위기가 한결 좋아질 것이다).

— 가능하면 차를 안타고 왔으면 좋겠다(그런 면에서 역삼역에서 교회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 특정 주일을 주차질서 확립주일로 정하고 장로님, 목사님 등 모두가 나와서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다.

— 교회주변의 도로를 주일에만 노상 주차허가를 얻어 제직들의 차량은 도로 주차를 하고 교회에는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이 일은 5월부터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어쨌든 주차문제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협조하고 양보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 이는 교회부흥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현대 교회의 부흥은 주차장의 넓이에 비례한다"는 말과 같이.

교회 안에서, 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고, 또 나가면서 주차문제로 기분이 상한다면 딱한 일일 것이다. 모두가 조심을, 모두가 관심을 그리고 모두가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아무리 주차공간이 적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나도 잘 해결해나가는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형수)

